

三. 遺構의 現況

現在의 社稷壇은 상당한 부분이 제 모습을 잃고 있다. 당초에는 여러 채의 부속建物(齋室 및 社稷署 施設)들이 있었고 壇 壇施設의 境域에 三 壇垣과 壇門 및 周垣, 周門 卽 紅箭門을 갖추고 神室을 두어 大享과 祈告祭를 지내왔던 것이나 朝鮮王朝가 몰락하면서 祭禮의 행사가 폐지되고, 日帝에 의해 公園化되어 開放되면서 壇과 그 부속 建物들이 점차 훼손되었다.

지금 남아있는 遺構는 中心部의 兩壇과 그 周圍 壇垣의 흔적인 地臺石, 四方 壇門址, 홍살門을 세웠던 柱礎石과 신방石形의 石材, 그리고 周垣의 地臺石列과 그 밑의 石築 一部가 남아 있다. 또한 周垣內 南西隅에 神室이 세워졌던 礎石과 基壇部만이 있다.

齋室과 社稷署·등의 부속 建物은 거의 없으며 다만 社稷署의 中心建物이었던 安香廳 建物만이 남아 지금 公園管理事務所로 活用되고 있다.

社稷壇의 正門인 表門은 當初 北周垣 밖에 따로 垣墻이 둘러쳐지고 北쪽에 자리하던 것을 몇 차례 이전하여 지금의 자리에 옮겨져 있다.

壇의 周圍에는 1900年代에 들어 그 機能이 폐지된 후 여러 차례의 公園 및 개발계획이 진행되어져 지금은 서울시立 鍾路圖書館, 서울教育院, 어린이圖書館, 警察官 派出所, 洞事務所, 새마을금고, 老人會館, 檀君聖殿 등의 公共建物과 第一水泳場, 어린이수영장, 洋弓場 등의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고 西쪽의 인왕산 줄기의 계곡에는 옛 彌雲洞 登科亭 터에 黃鶴亭이 移建되어 옛 射亭의 모습으로 弓術연마場이 되고 있다.

또한 社稷壇의 周圍 四方이 公園으로서의 機能에 맞도록 造景施設과 便宜休息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李栗谷先生 銅像과 申師任堂 동상, 金東仁文學碑 등이 세워져 있다.

遺構現況조사는 地上에 表出되어 있는 遺構와 一部 地下에 埋沒된 部分을 확인하기 위한 簡易試掘로서 遺址를 찾아 確認하고, 同 區域內에 散在하는 現代施設物의 現況을 아울러 파악 記錄함으로써 復元 및 淨備計劃에 뒷받침하고자 한다.

1. 壇壝

壇은 東쪽에 國社壇과 西쪽에 國稷壇으로 각각 正方形의 平面으로 한 변의 길이는 대략 7.7m 内外이다.

壇과 壇의 사이는 약 1.55m 정도로 서로 平行하게 놓여 있으며 壇을 이루는 石築은 세벌대로 構成하고 있는데 下段은 地表中에 약간 묻혀 있고 上段은 中段에 比하여 높이가 낮다.

壇의 높이는 0.95m~1.00m 정도로 上段 0.23~0.25m, 中段0.46~0.48m, 下段0.25~0.3m로 바닥의 凹凸에 따라 全体 높이에 變化를 보인다.

築壇에 使用된 長臺石들은 긴 것은 3.00m까지 있으나 대체로 0.9~2.4m 内外로 되어 있고 간혹 아주 작은돌로 틈을 메꾸어 놓은듯 한 것도 있다. 石材의 表面은 거친정다듬 정도의 加工상태로 모서리를 둥글게 모죽임하여 설치하였다.

원래 각 壇의 四方에 三段의 階段이 놓여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壇의 上部에는 平坦한 바닥에 아무런 장식이 없으나 社壇 上部 南面 中央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石主가 세워져 있다.

記錄에 의하면 石主의 높이는 2尺5寸로 네모기둥인데 한 변의 길이가 1尺으로 正方形이며, 上部를 뾰족하게 하고 높이의 半은 땅 속에 묻혀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 地表上에 露出된 部分은 450mm로 영조척으로 약1.5尺 가량 되고 대략 30cm 가량이 흙 속에 묻혀 있다.

아래의 實測値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壇과 稷壇은 서로 비슷한 크기이고 當初부터 같은 規模로 만들어져 壇의 中心部에서 東西에 배치되어 있다.

兩壇의 규모 實測值

	國社壇		國稷壇	
	길이	높이(中央)	길이	높이(中央)
東面	7.77m	1.00m	7.10m	1.10m
西面	7.82m	0.94m	7.70m	1.02m
南面	7.78m	0.94m	7.80m	0.98m
北面	7.75m	1.02m	7.74m	0.96m

國朝五禮儀에 의하면 各壇의 크기를 二丈五尺으로 하고 높이는 3尺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략 營造尺으로 계산하여 현재의 크기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各壇의 上面 바닥에 黃土를 깔았다는 記錄에 반해 지금은 平坦한 바닥에 잔디를 심었으며 壇垣 内部 바닥에도 잔디로 되어 있다.

원래의 바닥은 박석으로 깔았음을 朝鮮古蹟圖譜 등의 寫眞에서 볼 수 있다. 또한 壇垣 内部 바닥에 쇠고리 밝혀 있는 박석이 11개 가량 배치되어 있고 네모진 박석의 上面에 직경 45mm 가량의 홈이 파여져 있는 박석이 5군데 남아있다.

이는 차일을 설치할 때에 活用되는 차일고리와 차일기둥을 받쳐놓기 위한 固定台石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차일기둥 세우는 박석은 그 위치가 壇과 壇사이를 지나는 中心軸에 가깝게 모여있고 壇의 南과 北에 2개씩 그리고 또 하나는 서북쪽 귀퉁이에 놓여 있다.

壇의 四面은 壇垣을 둘러치고 四方 壇垣의 가운데에는 壇門을 설치하였다. 壇門에는 紅箭門을 세워 그 柱礎石이 四面에 남아 있다. 「古蹟圖譜」의 사진에서 紅箭門의 모습과 壇垣의 형상도 함께 볼 수 있다.

壇門의 크기는 柱礎石의 中央에 파여 있는 기둥홈의 中心거리를 측정하여 본바 아래의 實測值와 같이 2.45m 내외가 되고 기둥홈의 크기는 27.5cm 内外로 四門의 기둥크기 및 홍살문의 높이도 거의 비슷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柱礎石의 크기는 西壇門의 경우 가로630mm, 세로600mm, 높이 730mm로 되어 있

는데 中心部를 향한 쪽의 모서리를 45° 각도로 모를 죽였고 윗면의 内外面도 같은 方法으로 모죽임하였다.

壇門 實測值

	柱礎石 기둥홈 中心간격	內幅	柱礎石 규격	柱礎石 높이
東門	2.37	1.75	630×615(南) 650×630(北)	770 755
西門	2.48	1.84	630×600(南) 650×610(北)	765
南門	2.52	1.87	665×600(東) 690×620(西)	775 765
北門	2.36	1.79	590×600(西) 590×590(東)	770 750

礎石의 中心部에 파놓은 기둥구멍은 직경이 270mm 내외이고 깊이는 약250mm 정도이다. 이 구멍에 홍살문 기둥을 세웠다.

이 기둥홈의 바닥 한쪽에 자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어 배수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물구멍은 門의 內側으로 뚫어져 있다.

礎石의 下部는 약 600mm 幅 정도의 장대석을 놓았다. 그 두께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礎石을 받치기 위하여 매우 높은(두꺼운) 長臺로 門의 中心에서 서로 맞물려 있으며 外端은 立礎石 外緣과 같은 위치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長臺石의 길이는 3.03m로 각각의 길이는 약 1.56m씩이다.

이 長臺石은 둔지방과 같은 役割을 하고 있다.

壇門의 넓이가 1丈이라고한 記錄과 비교하면 영조尺으로 10尺은 3.1m 内外가 되어 홍살門 柱礎石의 外端넓이 정도에 해당한다.

門의 内外에는 礎石이 있는 위치의 안팎으로 길이620mm, 幅400mm정도의 석재

를 홍살문 기둥과 一直線으로 놓았다.

이 石材의 윗면에 직경 100mm 정도의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고 > 크의 가깝게 장방형의 홈이 파여 있는데 홈은 幅120mm, 길이150mm 정도로 外端은 길고 内端은 윗바닥面과 같게 경사진 바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石材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진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門의 内外에는 전돌을 깔고 그 곳에 장대석의 틀을 놓았는데 이 장대석의 外端과 左右의 홈과인 石材外端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壇門 柱礎의 양쪽으로 壇垣이 연결되어 있다. 壇垣의 높이는 古 記錄에 三尺5寸로 되어 있다. 현재 壇門옆에 남아있는 壇垣長는 3단의 높이는 3段 700mm이고 壇垣 네 귀에 남아있는 귀기둥(耳石)의 높이는 300mm이다.

古蹟圖譜의 壇門과 壇垣사진에서 보듯이 長台石위에 溝渠를 파고 그 위에는 屋蓋塼으로 덮혀 있다. 지금 長台石과 네귀돌中 3개소만 남아 있다.

壇門의 内外에 設置된 홈과인 石材와 전돌 깔린 모습은 현재 壇門에서 비교적 完形에 가깝게 남아 있으나 다른 세곳은 허트러져 없어졌으나 반쪽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원래는 西門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推定되고 門内外에 설치된 遺構中에 홈이 파인 石材의 모습은 제각기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壇垣内の 施設物中에 瘞坎이 있다. 한 변이 약 1m 정도되는 正方形으로 幅20cm의 장대석 4개로 짜여진坎을 땅에 묻었는데 그 깊이는 대략 50cm 가량이며 뚜껑을 해 달았던 鐵物장식이 남아 있다.

瘞坎의 위치는 壇의 北쪽 北壇門의 左右에 각 1개소씩 2개가 있다. 東쪽의 1개소는 門 바로 옆에 부설되었고 西쪽의 1개소는 門으로부터 5m가량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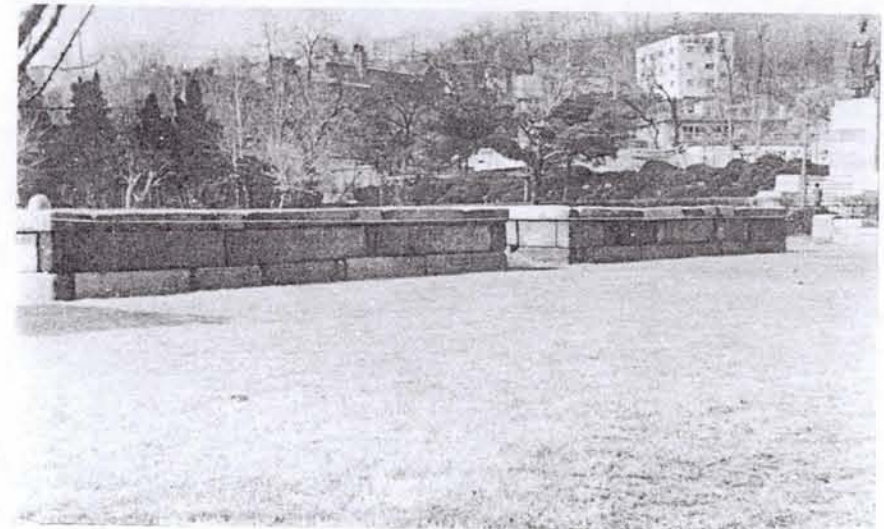
이 瘞坎은 大享을 지낸 뒤에 祭物의 一部를 땅에 묻는 禮式에 따른 것으로 각 壇別로 따로 設置하였던 것이다.

壇垣의 形像도 正方形으로 그 内部의 幅이 東西31m, 南北 31.2m가 되어 四方 25步라는 與地備考, 文獻備考 등의 記錄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東南隅에서 본 社壇(右)과 稷壇(左)의 모습

社壇(左)과 稷壇(右)의 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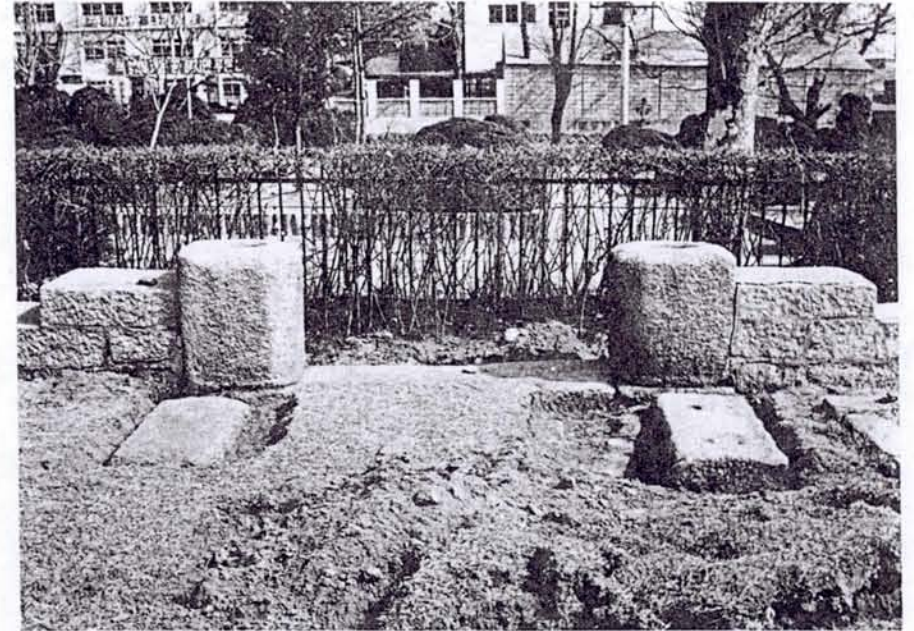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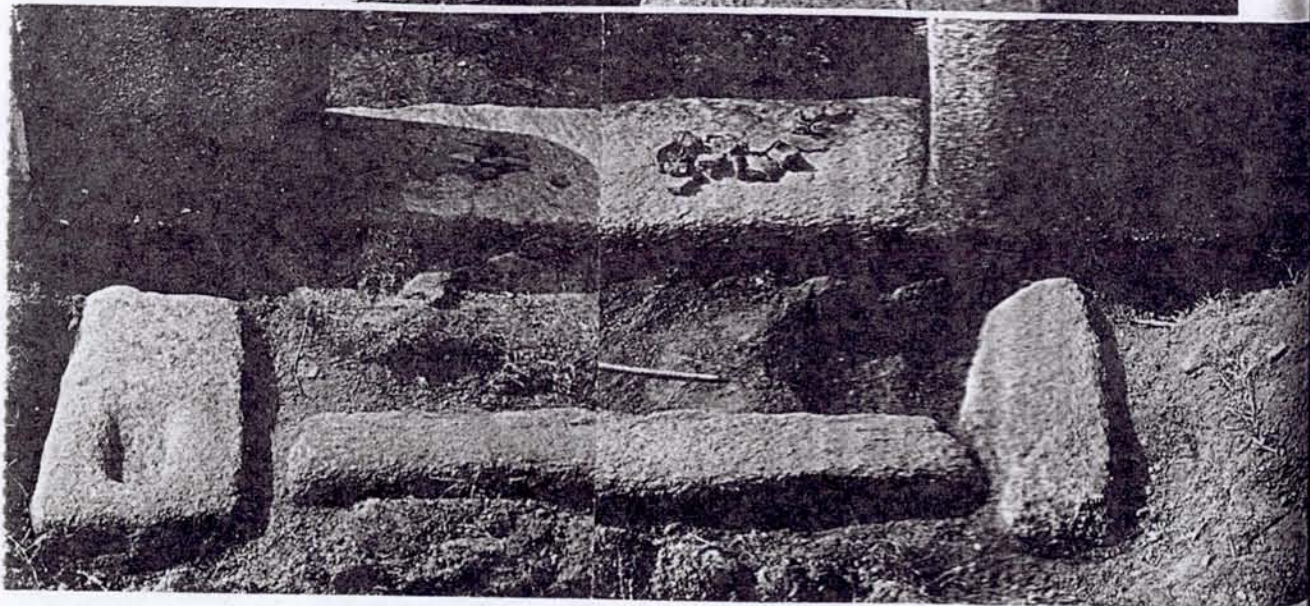


西壇門 内部 모습
←

西壇門의 柱礎石, 門址枋石
信枋石과 數博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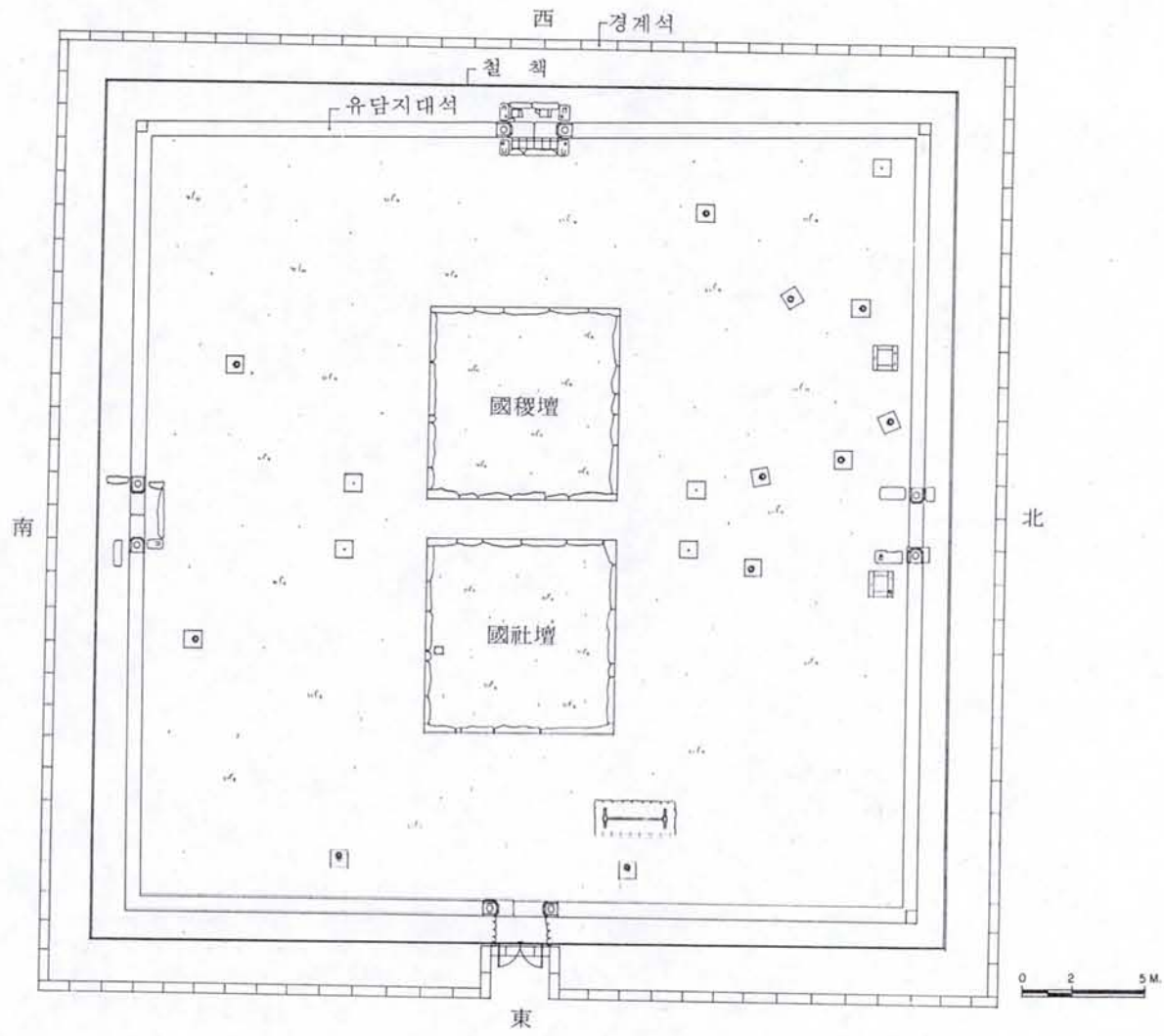


↷ 南壇門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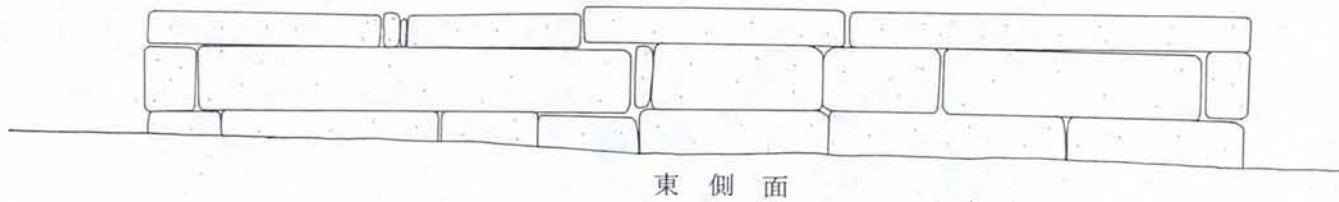


北壇門 柱礎石과 信枋石, 門址枋石과 隣接한 控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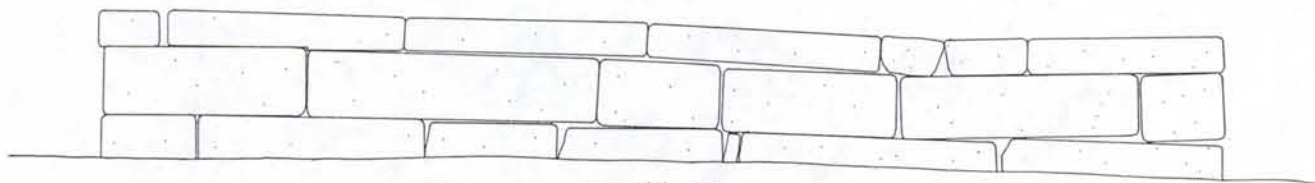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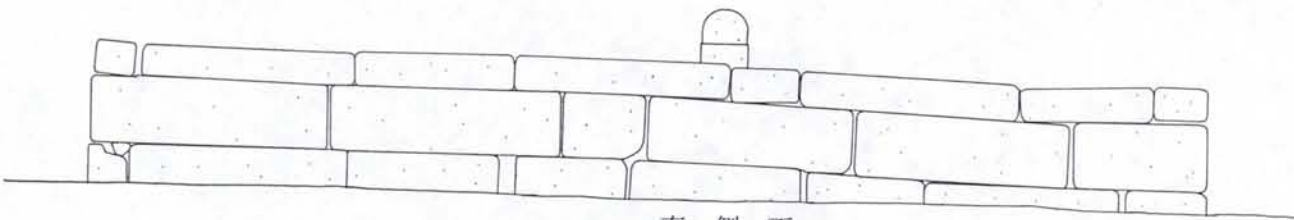
壇墼의 現況 配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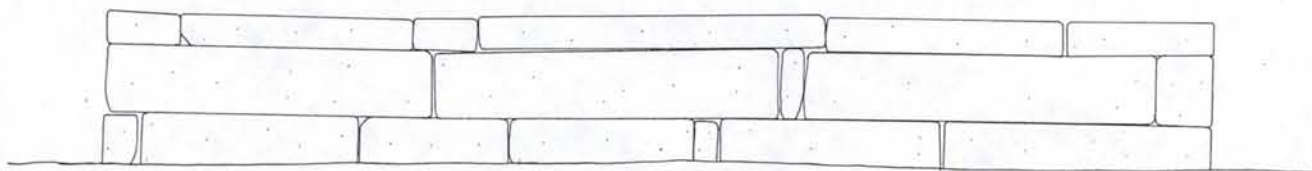
東側面



西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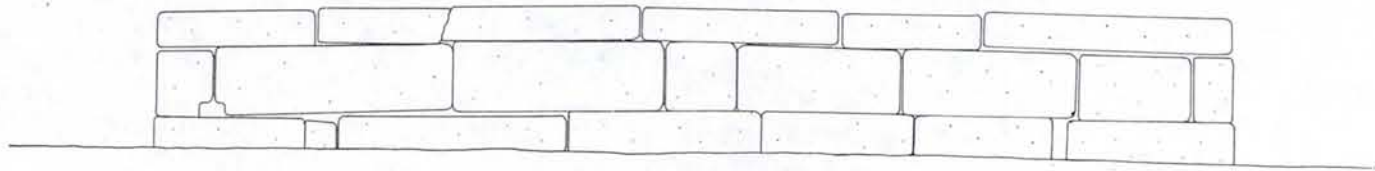
南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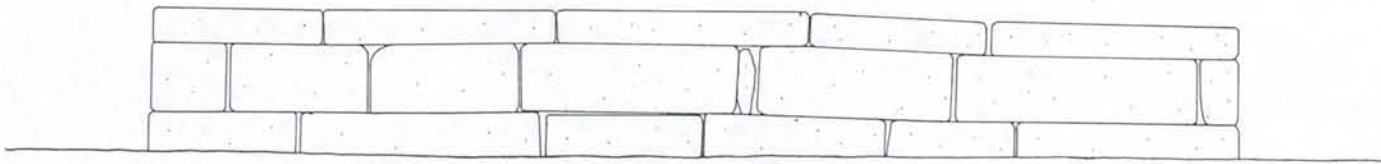
北側面

國稷壇 四面 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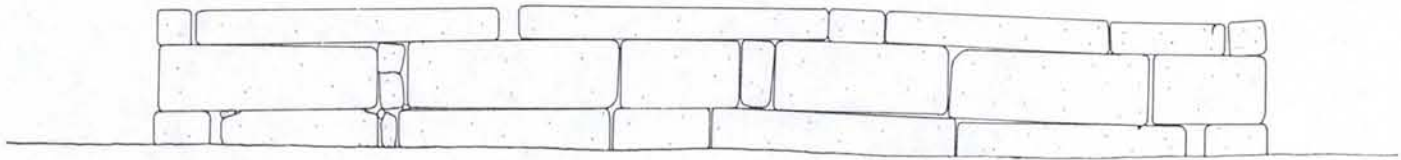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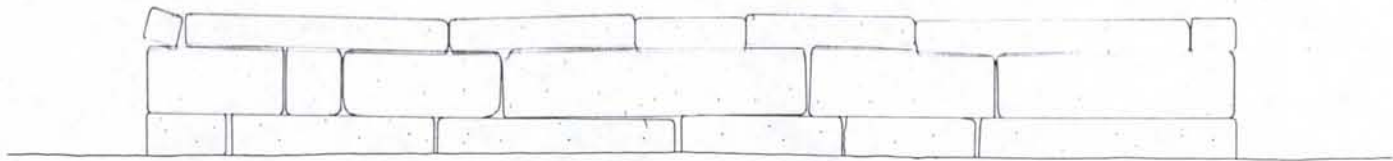
東側面



西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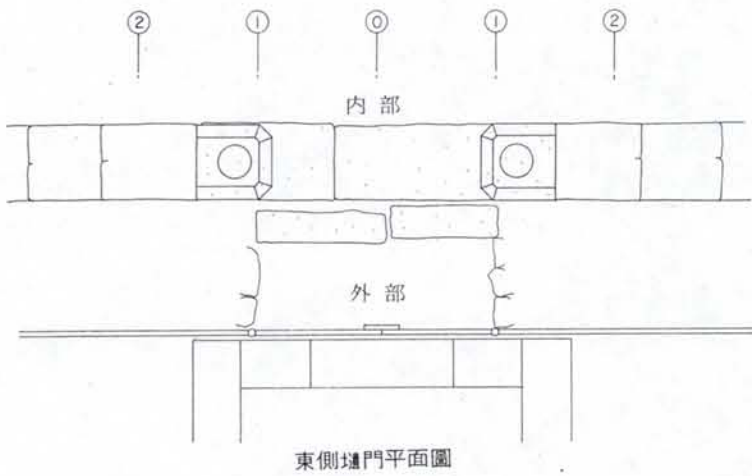


南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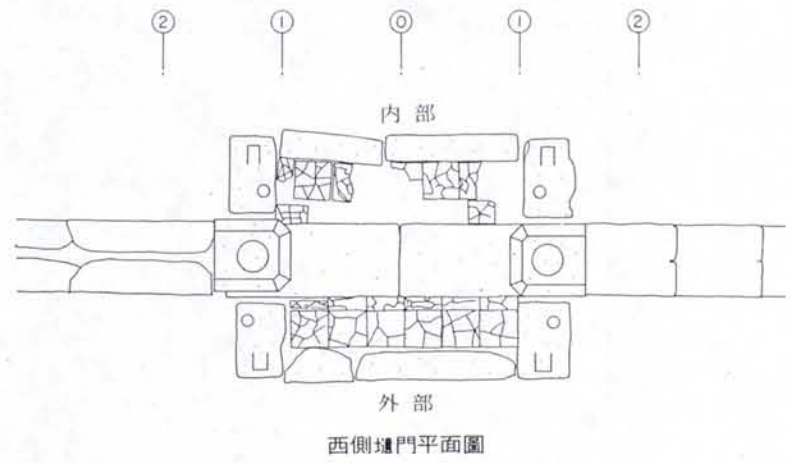


北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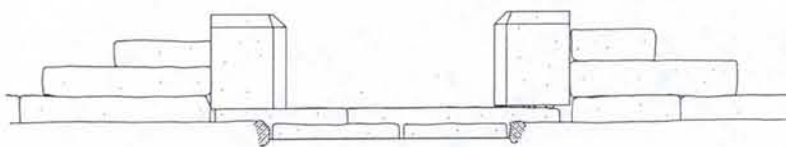
國社壇四面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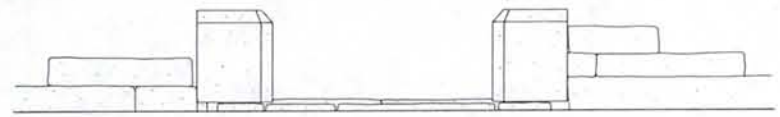
東側壙門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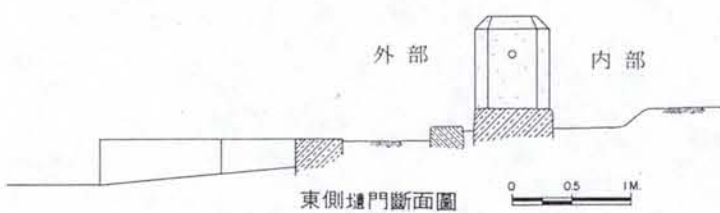
西側壙門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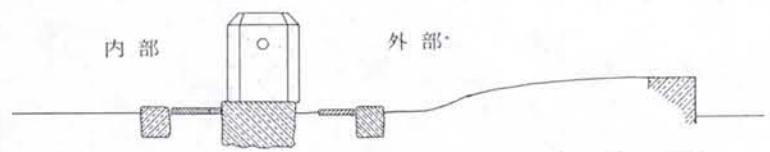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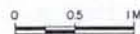
外部立面圖



內部立面圖



東側壙門斷面圖



西側壙門斷面圖



東壙門·西壙門 現況 實測圖

2. 周垣과 周門 또는 紅箭門

현재의 周垣과 周門은 公園施設로 因하여 相當部分이 멸失되어 있으나 地臺石 등이 남아 있어 全體的인 윤곽은 대략 파악된다. 周垣 역시 四方 中央에 門을 내었는데 東·西·南은 單間의 紅箭門을 세우고 北門은 三間門임을 國朝五禮儀 및 다른 資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遺構에서는 北門만 이 그 유지를 잃어 그 正確한 位置와 間數 및 규모의 확인이 不可能하다.

周垣은 長方形 平面으로 南北方向이 길고 東西方向이 짧은 形態인데 南北長은 83.4m, 東西長은 70.7m 内外이다.

現在 地臺石과 그 위의 長臺石 한단만이 일부 보일뿐 垣牆의 구조를 알 수 있는 遺構는 찾아볼 수 없으나 「古蹟圖譜」에 수록된 사진에 보면 地臺石 위에 사 고석을 4~5段 쌓고 그 위에 博돌담을 여러켜 쌓은 위에 지붕은 기와를 덮어 마 감하였다.

이러한 담장형은 宮闕이나 宗廟 등의 内담과 비슷한 형태이다. 사방의 門은 壇門의 위치와 같은 軸線에 배치되고 周門을 들어서면 바로 正面에 壇門이 바라 다 보이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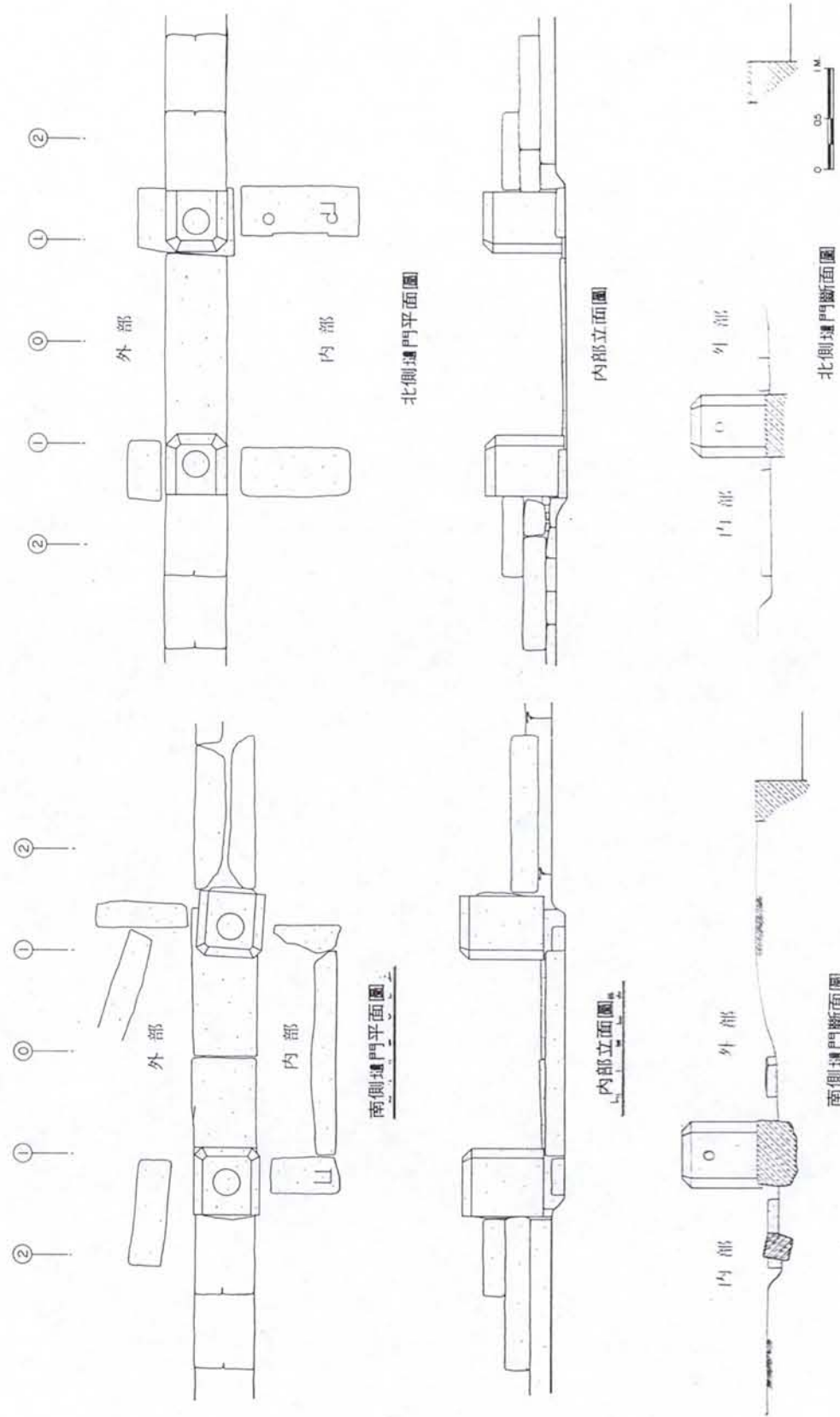
北門을 제외한 東·南·西의 周門은 그 形態가 壇門과 비슷하다. 우선 東門의 형태를 살펴보면 門幅의 中心에서 본 양쪽에 紅箭門 柱礎石이 남아 있는데 가로 640mm, 세로 630mm, 높이 760mm로 壇門의 초석보다 약간 크게 되어 있다.

또한 기둥을 꽂아 세울 수 있게 만든 홈은 직경 300mm로 壇門보다 약간 큰 便 이다.

礎石의 外形은 壇門과 거의 흡사하다. 모서리의 모죽임한 형태가 약간 不規則 하며, 礎石의 上面에 内側을 向하여 幅 110mm 정도의 홈이 파여져 있다.

이는 문짝을 달기 위한 시설인 門植 세우기 위한 홈이라고 추정되어진다. 礎石의 下部는 幅 650mm 정도의 長臺石을 놓았는데 길고, 짧은 두 개의 부재로 구 성되어 있다.

긴 부재는 길이가 2670mm이고 짧은 것은 560mm 정도로 北側의 짧은 것은 겨



南側門·北側門 現況 實測圖

우礎石을 받치고 있는 정도이다.

이長臺石의上面中心部에는門을 여닫을 때 필요한遠山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의도된長方形의突出部가 있다.

이 돌출부는 가로360mm, 세로120mm 정도인데 높이는 25mm 정도 돌기되어 낮은 편이다.

門의内外에設置된方形의區劃 역시壇門의 경우와 비슷하다. 현재東門의 경우는 본래의 모습에서 약간 변형되어 있다.

礎石内外에 놓인 신방석형 홈과인 石材는壇門의 경우 円孔과 바닥이 경사진 矩形 등 2가지 홈이 있었으나 外門의 경우는 円孔홈은 없이 바닥 경사진 矩形 홈만이 있다.

이런 홈의 用途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礎石内外에 각 1개씩 문양쪽을 습하여 모두 4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2개만 남아 있는데 紅箭門 남쪽 礎石 내부와 북쪽 초석 외부에 하나씩 있다.

周邊의 造景工事 實施로 인해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되어 옮겨져 있는 것도 발견되고 본 위치에서 다소 밀려져 있는 것도 있다.

이것을 外端으로 하여 門内外에 方區를 만들고 전들을 깔기 위한 시설인 것만은 확실하다.

北門의 경우 그 遺址가 완전히 훼손된 상태여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朝鮮古蹟圖譜」 사진에서 三間홍살문柱의 위치에 4개의 큰 礎石(立礎)이 보이고 그 外部로 5~6段의 石階가 보이는 것 등 또한 「國朝五禮儀」와 「社稷署儀軌圖說」 등에 나와 있는 배치상황도 또한 謙齊의 社稷壇圖 등의 資料로 보아 世間에 흔히 볼 수 없는 3칸의 홍살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칸의 홍살문은 他處에서는 發見되지 않으며 여기에서도 北門에만 사용된 듯하다. 社稷壇의 正門(表門)이 三間인 것과 같은 연유에서 그렇게 세웠던 모양이다.

이 北周門의 밖에는 이 三間 홍문의 넓이와 부합되도록 된 石階가 있었고(突出되어) 담장높이를 三間홍문 左右에서는 一段높여 쌓았던 것임을 볼 수 있다.

지금은 石階도 제자리를 잃은듯이 옛 石材를 정열하여 再築된 위에 치석수법이 다른 계단돌이 올려져 있으며 北壇門의 中心軸에서 延長된 軸線을 中心으로 하여 볼때 계단의 左右端의 길이가 서로 달라 對稱되지 않는다.

周垣 西門은 지금 栗谷銅像과 師任堂銅像 사이에 남아 있어 西便 外垣이 바로 그 軸線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公園區劃의 한 加工長台石이 놓여 있고 두 銅像建立으로 인해 西垣이 모두 滅失되어 없어졌다.

門 內側의 構成材 등도 廣場조성으로 채철되어 없어졌고 紅箭門 礎石과 그 밑의 長臺石 그리고 外側으로 一段의 계단석만이 남아있다. 礎石은 가로630mm, 세로600mm 높이700mm이고 모죽임은 門의 中心을 向한 쪽에만 하였다.

윗면은 평탄하게 다듬고 홍살문주를 세웠던 홈구멍은 직경300mm로 東門과 비슷하다.

礎石 上面에 파여있는 門植홈도 東門과 같은 형상인데 그 幅이 약 100mm 정도로 되어 있다. 礎石 下部를 받치고 있는 長臺石은 두 개의 石材로 이루어졌는데 긴것이 2540mm, 짧은 것이 600mm정도로 두 개를 합한 길이는 3140mm이다.

짧은 石材는 南쪽 초석밑에 있어서 실제 위에서 내려다보면 긴쪽의 장대석만 보이는데 東門과 같이 遠山을 돌출시켜 놓았다.

이 遠山의 크기는 가로300mm, 세로200mm 정도의 方形으로 솟아오른 높이는 55mm가량 되어 다른 것보다는 높은 편이다.

門밖쪽으로는 地帶가 높아지면서 한단의 石階가 마련되었다. 높이 약300mm의 段을 만든 長台石이 礎石밑 長台에 맞대어 놓았다. 이밖의 상태는 그 훼손 여부를 알 수가 없다.

周垣의 南門은 바닥 長台石만 남아 있을뿐 홍살門柱 세우는 礎石이 없다. 礎石받침 長台石이 東西門에서와 같이 長2450mm와 670mm의 두 토막 石材로 이어져 있고 그 幅은 각 600mm와 730mm로 각각 되어 짧은 부재의 幅이 다른 石材에 비해 매우 넓다.

이 長·短 두 개의 長台石 上面 갓부분에 크기가 서로 다른 원홈이 파여져 있어 이곳에 門柱礎石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西쪽의 長臺石에는 크고 작은 두 개의 홈(240mm, 110mm의 徑)이 있고 큰 홈은 臺石의 中心線上에 位置하면서 西側端으로 부터 190mm 정도 안으로 들여 그 中心이 있다. 그리고 작은 홈은 門의 內側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그 位置는 內端으로부터 160mm, 西側端으로부터 420mm가량 안으로 들인 위치에 그 중심이 있다. 이 두 개의 둥근홈은 그 用途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위치에 礎石을 놓으면 완전히 덮여지도록 되어 있다.

東便에 있는 짧은 長臺石 上面에 홈이 파여 있는데 그 上部에 놓였을 礎石材(다른 周門의 초석과 견주어 보아)의 平面形과 닮아 있다. 따라서 이 臺石을 현 상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돌려 놓으면 완전히 맞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長臺石의 中心部에는 역시 遠山을 鑿出하고 있는데 가로330mm, 세로120mm, 높이40mm의 矩形이다.

周垣에 부설된 周門에 있는 遠山으로 보면 門을 모두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이 南周門의 안쪽으로도 一段의 長臺가 놓여 있는데 원래대로의 狀態는 아닌 것 같다.

다른 門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사홈을 둔 신방석형 石材가 礎石 안쪽으로 배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나 門左右의 담장지대석 列 한단 남아있는 中에 이곳 신방석과 같은 형의 경사홈을 둔 石材가 3개 섞여 있어 公園工事中에 옮겨 놓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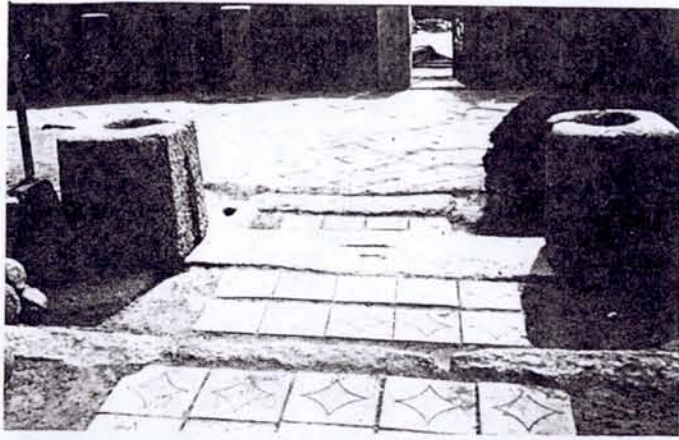
全體的으로 보아 東·南·西 周門의 幅은(홍살문주 기둥홈간의 中心거리로 보아) 2,550mm 내외로 대개 비슷하다. 壇垣과 周垣의 위치관계는 서로 一定한 거리를 갖고 있다.

壇垣이 正方形인 반면 外垣은 長方形으로 서로 대조적이다. 그러나 主要儀式의 執行장소가 壇垣의 北쪽 즉 北壇門과 北周門 사이의 空間으로 이 부분의 넓이를 다른 곳보다 더 넓게 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全体配置圖에서 볼 수 있듯이 各門의 거리를 測定하여 보면 東壇門에서 東周門까지는 19.05m, 南壇門에서 南周門까지는 19.11m, 西壇門에서 西周門까지는 19.04m로 서로 비슷하나 北壇門에서 北周門까지는 31.48m로 가장 넓게 되어 있

다. 따라서 壇垣은 周垣의 中心部에서 南으로 약간 치우쳐 배치된 상황임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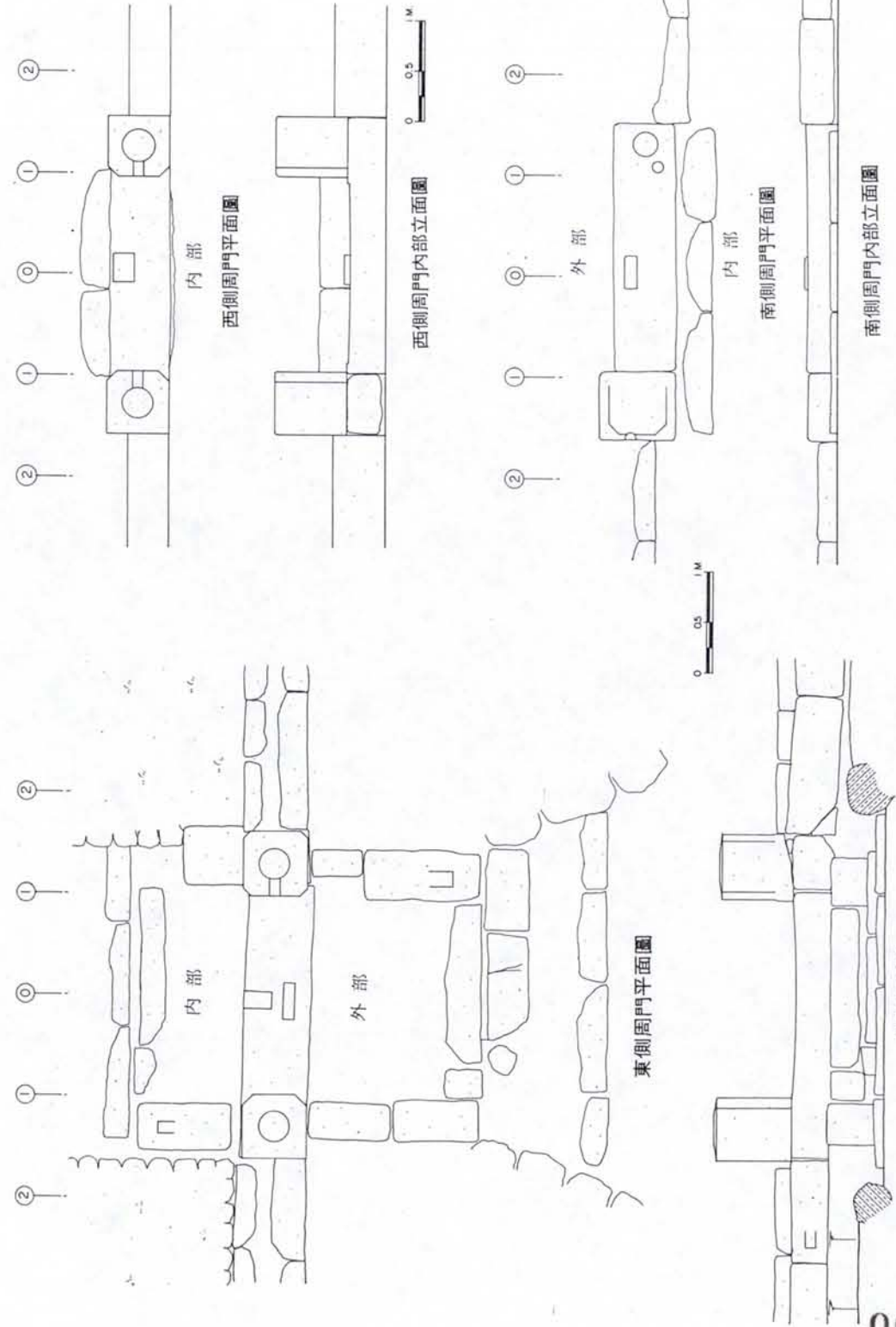
東周門址(紅箭門)



東周門址 外部



北側(周垣)부분의 現況
견치석축 위에 舊材石列이 보인다
西周門址(紅箭門)
柱礎石과 門址基石



東·西·南 周門(紅箭門) 現況 實測圖

3. 神室과 神道 및 版位

壇垣과 周垣사이의 空間에 있는 施設로는 神室과 版位 그리고 이들로부터 壇門 또는 周門 등에 연결되는 神道 등이 있다.

神室은 周垣의 西南隅 모서리 안쪽에 자리잡아 北向하여 배치되어 있다. 지금은 基壇과 礎石 4개만이 남아있어 正面 側面 各 1間씩의 작은 單間建物이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基壇은 낮으막한 두벌대 기단으로 둘러지고 北向한 前面쪽에 石階 2段이 부설되어 있다.

現在 남아있는 神室의 壇構로 보면 「國朝五禮儀」나 「社稷署儀軌圖說」에 나타난 그림과 같은 위치와같은 규모 형태로 비정되나 「謙齋의 社稷壇圖」에서 보는 神室은 前面 2間으로 그려져 있음이 現 유구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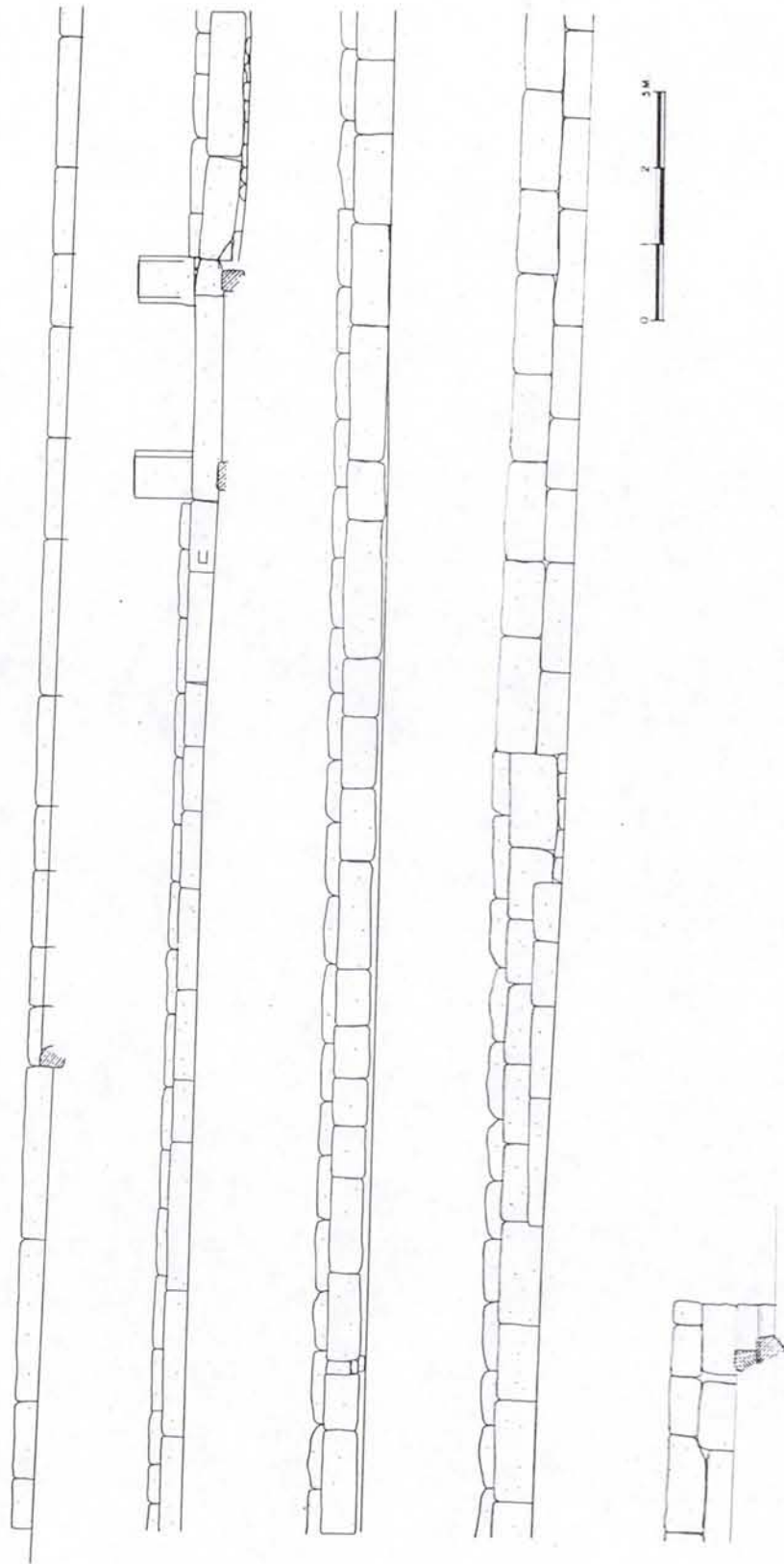
實測하여본 神室의 遺址는 四方 一間으로 거의 正方形을 이룬 평면으로 한변의 柱間은 3.91m~3.94m이다. 이는 營造尺으로 13尺에 해당된다.

礎石은 方形 礎盤에 圓形의 柱座를 彫出한 형식으로 下枋이 지나는 부분에 方形홈을 二方으로 파놓았다.

따라서 기둥사이를 건너지른 下枋의 밑면은 礎石 方形 礎盤 上面에 맞닿은 모습이 된다.

礎石의 크기는 方形礎盤의 한변이 750mm 내외이며 圓形柱座의 밑지름은 570mm 윗지름은 500mm정도이다. 그리고 홈의 幅은 100mm정도이다.

基壇石은 두벌대로 되어 있는데 現 地表上의 높이는 北側이 480mm, 東側이 525mm, 南側이 470mm, 西側이 420mm정도이다. 上段 長台石은 幅210mm, 높이 270mm이고 下段 장대석은 地中 TRENCH에서 확인한 바 높이가 650mm나 되는 매우 높은 운두를 가지고 350~400mm가량 表土에 묻혀 있다. 지금 地表는 상당한 깊이로 埋立되어 北側 階段石의 한단은 완전히 表土하에 묻혀 있다. 두 단의 계단석中 下段은 그 踏面바닥이 神道의 바닥높이와 맞닿아 있을 것으로 推定되어 진다.



東側 周垣址 實測圖

이 石梯의 길이는 1.800m, 높이 약 30cm, 幅 41cm로 北面기단쪽의 거의 中央에 놓여 있다.

基壇의 넓이는 礎石의 中心線을 기준하여 볼 때 東側이 830mm, 西側이 870mm 南側이 850mm로 서로 비슷하나 北側은 1,360mm로 가장 넓게 되어 있어 正面인 北쪽 기단의 重要性을 나타내 보인다.

따라서 全体넓이는 正面5,650mm, 측면6,180mm로 약간 長方形의 모습을 하고 있다.

두벌대의 기단中 甲石은 外面下端에 물림턱을 뒀으며 上面에는 바닥전돌을 깔았던듯 약4~5cm 깊이의 물림턱을 파내었다.

版位는 그 위치와 형상에 대한 그림이 「國朝五禮儀序禮圖說」과 「社稷署儀軌卷首圖說」에 표시되어 있고 謙齊의 「社稷壇圖」에서 그 形容을 살펴볼 수 있을 뿐 그 遺址가 전혀 인멸되어 찾을수가 없다.

神道도 公園造成의 結果로 地表上에 露出된 것은 전혀 없으며 여러 文献과 도표에 기록된 것을 참고로 TRENCH調査에 의해 壇垣 南쪽 밖에 神으로 연결된 곳에서 일부만을 확인하였고 神室 前面 地表下에서 神道の 殘骸를 僅히 일부만 남아 있음을 찾아내었다.

南쪽 壇垣밖의 神道 殘骸로는 南壇門 밖 남쪽으로 6.5m가량 떨어진 위치의 地表下에 화강석 거친다듬의 불규칙한 할석을 쌓아놓은 神道갓들이 한줄이 연결되었고 그보다 북측으로 2m가량 떨어진 곳에 두께 4cm가량의 전돌을 일으켜 세운 경계列부분이 노출되었으며 그 경계 전돌列의 안팎(南北)으로 포방전을 깔았던 흔적이 약간 노출되었다.

이 神道の 북쪽 갓들이 있으리라 짐작되는 위치에는 近來에 설치된 花壇갓들이 정중하게 설치되느라고 神道の 유구는 모두 훼손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神道는 正確한 幅과 형태를 알 수가 없다.

이 神道가 延長되어 神室 앞에서 격인 狀態를 확인하기 위해 神室 기단의 北쪽 부근에 TRENCH를 넣어본 바 圖面에 表示한 바와 같이 전돌을 세워 연결한 神道갓列(혹은 三道中 중앙列일지도 모름)만이 약 1m가량 노출되었다. 이 전돌 경계列은 신실계단의 西端線에 맞추어져 있고 反對便에서는 이런 遺列이

없어 神道の 幅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神道바닥에 敷博이나 혹은 敷石의 如否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南壇垣邊의 신도유구에서 壇垣西便으로 이어지는 分岐될 곳에 西向하여 뺨은 막돌(갓돌)列이 1.5m정도 表出되었으나 이것이 神道の 부설인지 추후의 화단 시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石列의 높이가 博築列의 부설 높이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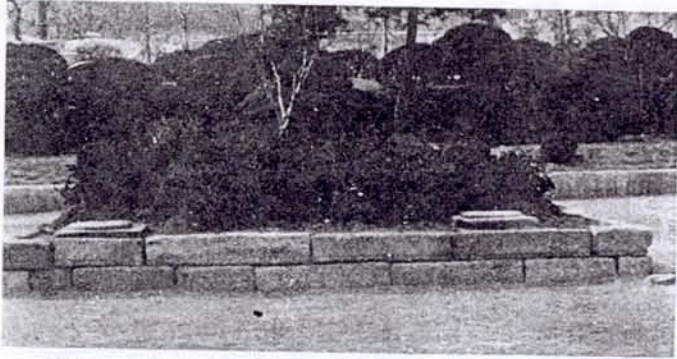
「社儀」壇壇圖說에 나타난 版位로부터 西周門으로 연결되는 神道를 찾기 위해 師任堂銅像 前面에서 東西로 긴 TRENCH施掘(試掘)을 하였으나 神道の 遺構를 찾을 수 없었다.

단지 北壇門의 밖으로 壇門幅에 엇비슷한 幅을 가진 화강석열이 4m가량 地表上에 露出되어 있어 이것이 北外門 또는 版位方向으로 이어지는 神道 갓들이 아닐까 하고 推測해 볼 뿐이다.

이 장대석은 幅 35cm 가량으로 비교적 잘다듬은 돌이다.

壇垣과 周垣周邊에는 담장 지대석으로 사용되었던 듯한 장대석이 흐트러져서 화단과 造景휴게시설 등의 곳곳에 사용되어 있어 元來의 位置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

神室 基壇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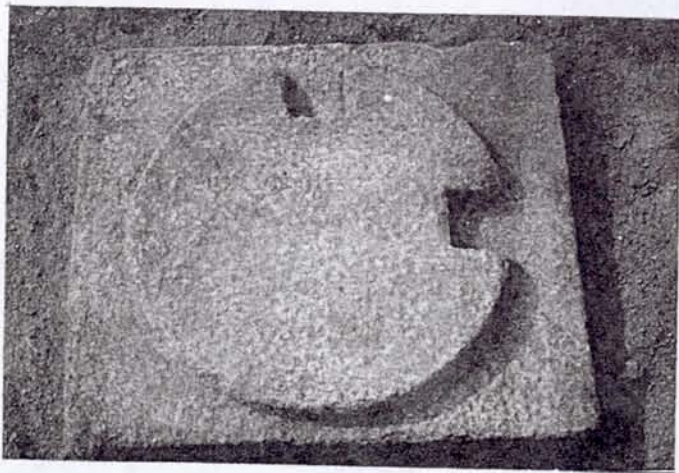
東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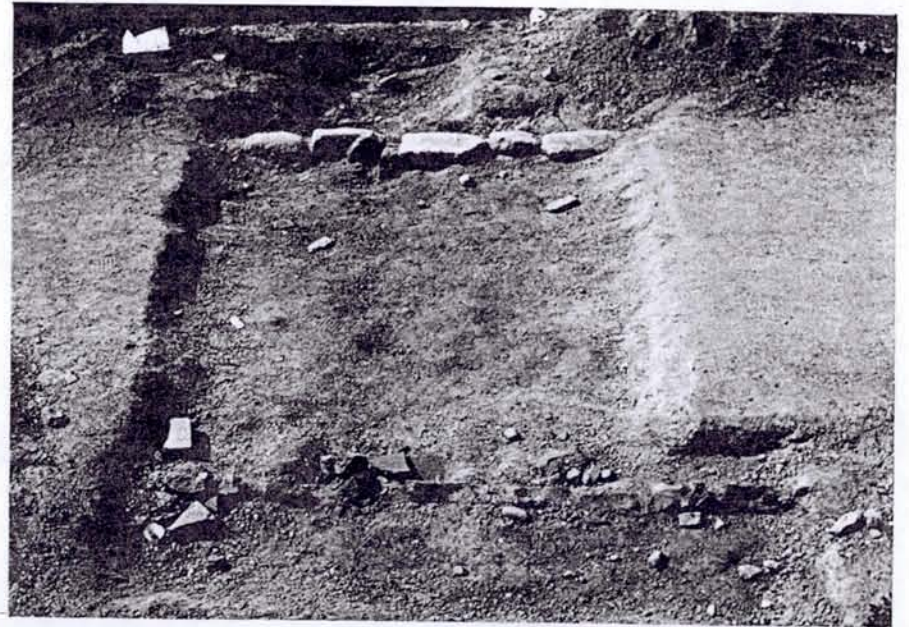
北側



↑ 基壇 甲石과 礎石
기단 바닥에 敷塼되었던
물림홈이 甲石上部 안쪽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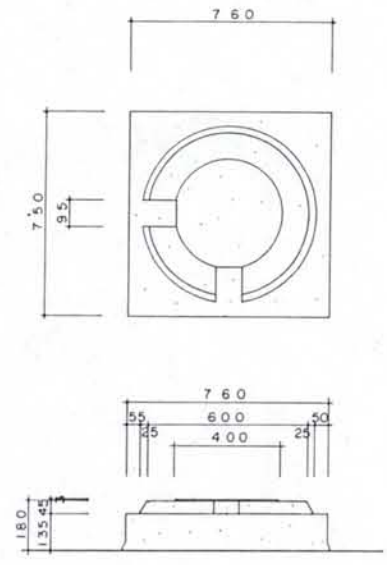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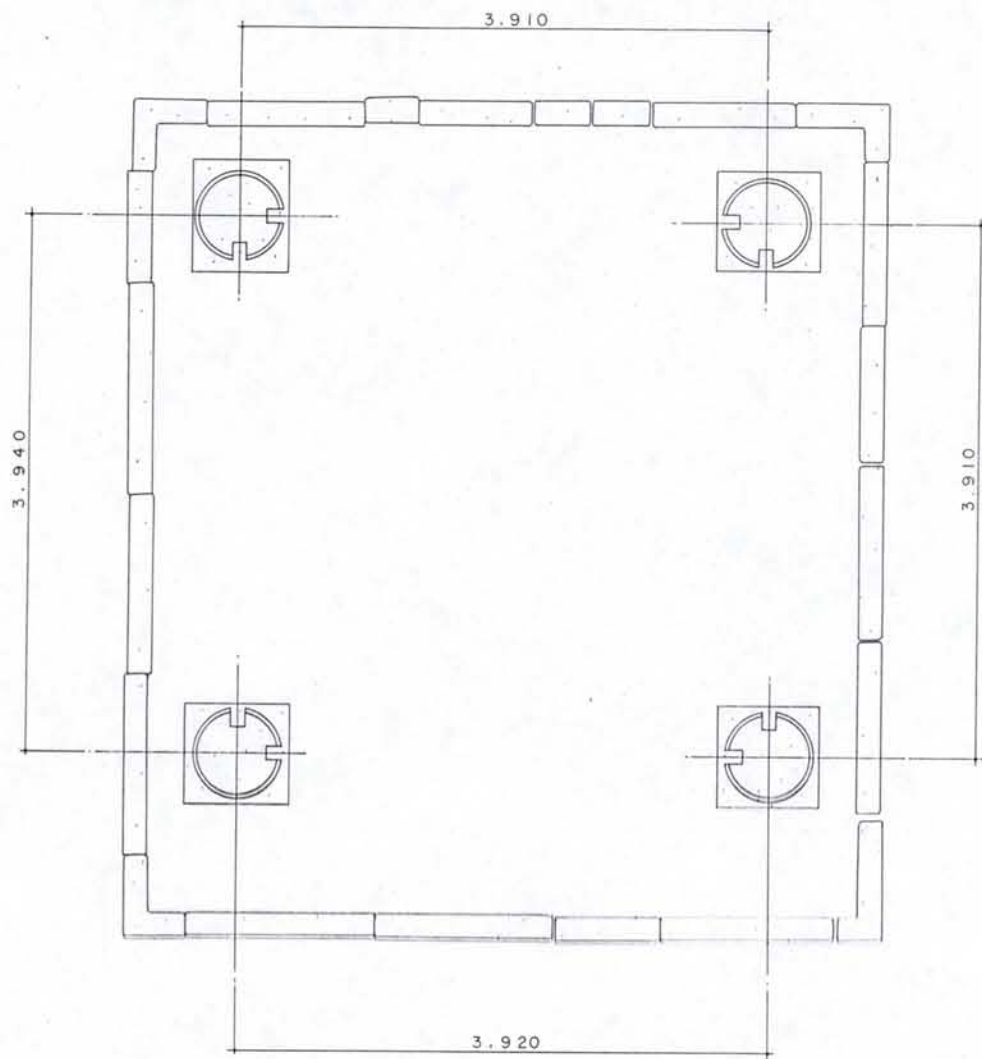
← 礎石 上部 二方으로 下枋
물렸던 홈이 패여져 있다



神道を 확인하기 위한 탐색 Trench에서 드러난 神道遺構 (南垣門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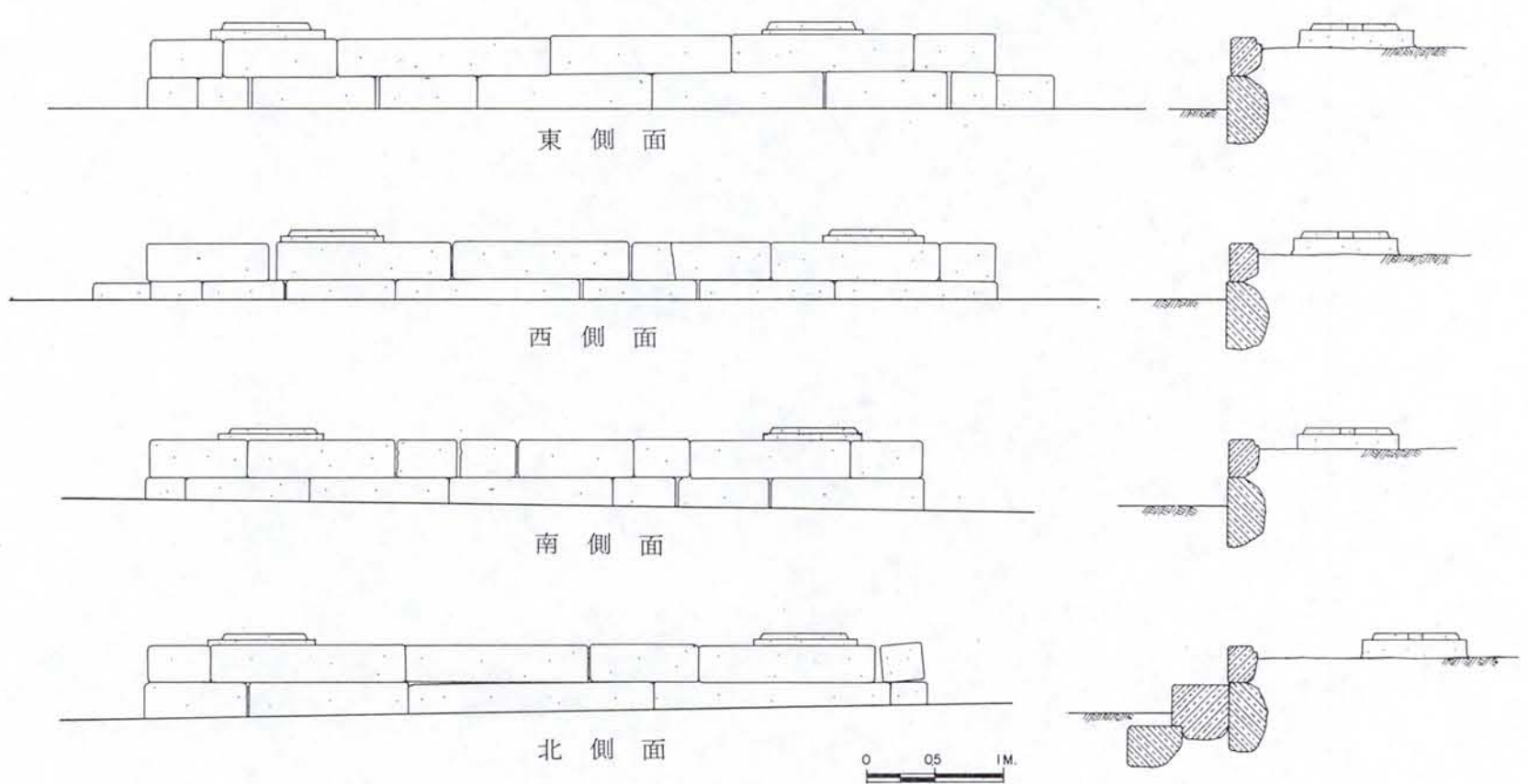
神室 前面의 神道 갓列 塼石



礎石詳細圖

3:1:10

神室 基壇斗 礎石平面 現況圖



神室 基壇四面 立面圖

38

4. 社稷壇 正門

이 門은 社稷壇 境域에 둘러쳐진 外牆에 부설되어 壇域內로 들어가는 神門으로 當初에는 北쪽에 있었던 듯하다.

太祖四年 社稷壇이 初協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그 후에 變遷된 내용을 仔細히 알 수는 없고 다만 壬辰亂時에 「壇을 제외한 諸 間架垣牆이 兵火에 殘破殆盡하였고」 그 후에 復舊하였다는 記錄(宣朝實錄27年9月)이나 肅宗時에도 「京外大風으로 因하여 社稷神門 三間이 傾倒破碎되었고 礎石이 모두 拔倒되었다」고한 記錄(肅宗實錄46年3月 戊辰條) 등으로 보아 이 正門은 몇차례인가 重建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門의 位置로 보면 「國朝五禮儀」등에 그 위치 표시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초에 그려진 謙齊의 「社稷壇圖」에는 壇境의 北便에 外郭담장과 함께 3間으로 그려있고 「社儀軌」 등에 北神門이라 記錄된 것으로 보아 北牆에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1783년에 편찬된 上記 「社稷署儀軌 卷首 圖說」 社稷署全圖에는 東便담장의 중앙에서 南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 以後에도 다시 北側으로 옮겨졌고, 1962년 都市計劃에 의한 道路확장으로 다시 14m가량 뒤로 물러 移築하고 懸板을 새로 달았다고 한다. 1939년 10월 18日 寶物 177호로 指定되었다.

門의 규모는 正面 3間 側面 2間으로 建坪 53.89 m² (16.33평)이다.

單層 맞배지붕으로 중앙間은 左右間보다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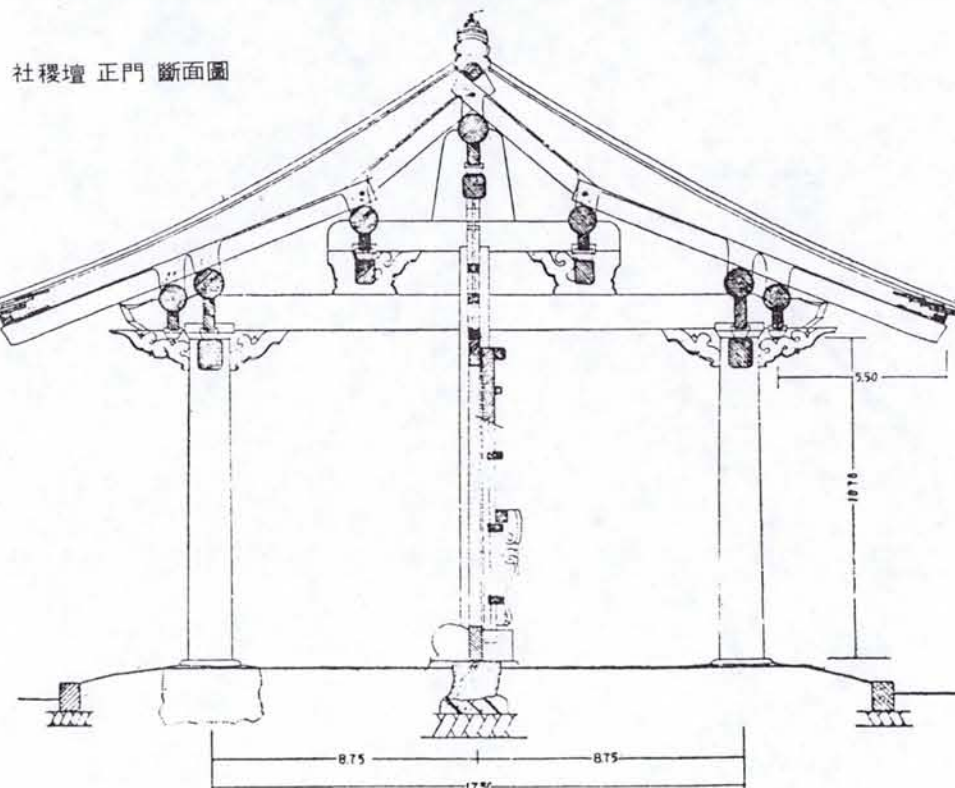
지금은 三間에 板扇을 달아 통로가 되고 兩側面에는 壁을 쳐서 外牆과 連接되어 있다.

門扇 上部는 紅箭을 달고 拱包는 初翼工에 外目道里를 내었다. 架構는 中央柱에 맞보를 대고 樑間의 四分變作內측에 들어 화반대공과 뜬창방 위에 宗樑을 걸어 五樑架를 구성하였다.

宗道里대공은 板台工으로 하고 どり받침장혀 下部에는 뜬창방을 보냈다. 天井은 연등천장으로 柱心包系의 양식을 건설하게 보여주고 있다.



正門의 背面과 北側面



5. 安香廳

社稷署의 中心建物로 正面 4間 側面 2間の 八作지붕으로 建物규모는 49.78㎡ (15.08坪)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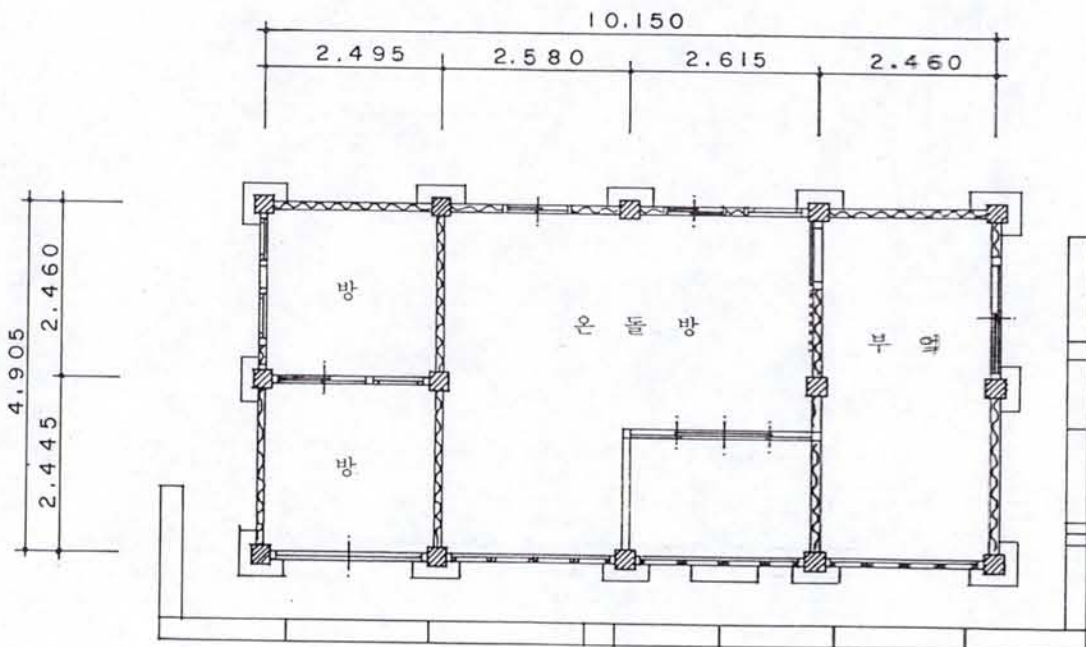
육중한 한벌대로 된 장대석 基壇을 돌리고 높은 方形礎石 위에 楹柱를 세워 軸部를 構成하였다. 架構는 기둥 위에 직접 大樑을 걸고 五椽架를 형성한 無椽牙系의 굴도리, 훗처마집이다.

現在는 公園管理事務所와 管理人舍로 活用되고 있어 窓戶와 內部構造가 多少變動된 듯하며 前面의 四間에는 四分閣의 세살門을 全間에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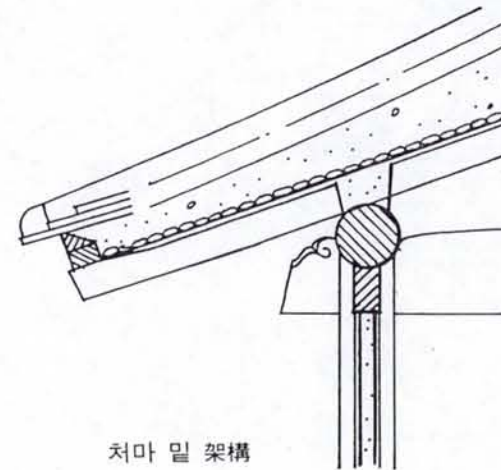
礎石의 크기는 上廣560mm, 下廣590mm, 높이250mm의 장중한 규격으로 平扁한 加工手法로 되고 8寸半 규격의 角柱高는 9尺가량 되고 지붕다루에 있는 望瓦類에 古格文樣이 새겨져 있는 등 장대석 基壇과 함께 豪放한 官衙建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安香廳」의 名稱은 肅宗代부터 「儀軌」에 보이며 神室을 改建할 당시에는 神主를 일시 이곳에 옮겨 모시기도 하였으며 祭禮의 準備節次와 親祭時에는 上이 待期하였던 집으로 알려지고 있다.

安香廳 平面圖



安香廳 正面



6. 黄鶴亭

社稷壇의 西北쪽 인왕산의 來脈중 한골에 있으며 正面 4間 側面 2間的 建坪 63.61㎡ (19.27평)의 樓亭式 建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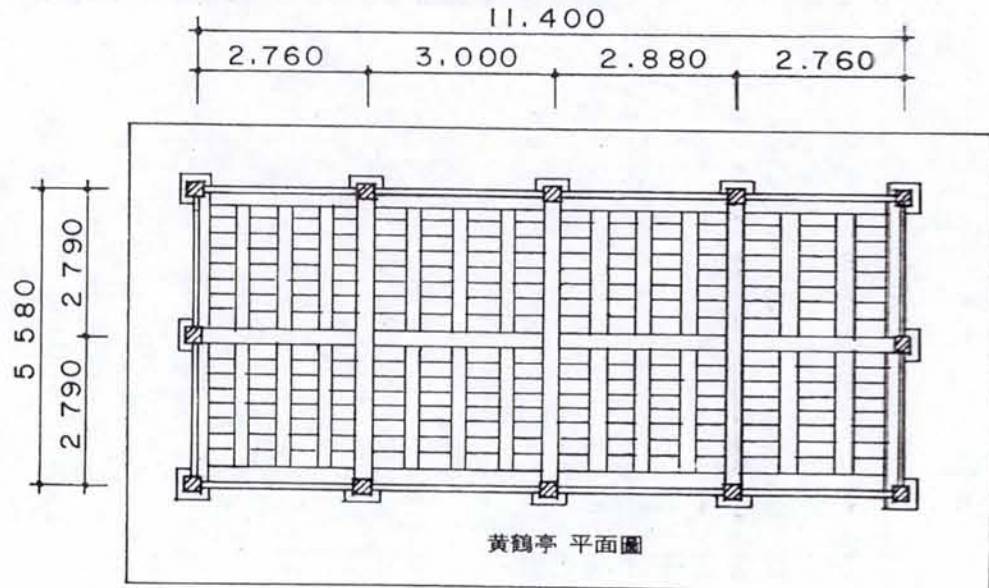
원래는 西村 다섯 射亭中의 하나인 弼雲洞 登科亭이 있던 터로 玉仁洞 登龍亭, 三清洞 雲龍亭, 社稷洞 大松亭, 樓上洞 風嘯亭(본래는 白虎亭 등과 함께 武人의 弓術道場으로 유명하였다.

現在의 建物은 慶熙宮의 會祥殿 北쪽에 있던 黄鶴亭이란 名의 軒亭으로서 朝鮮朝末에 弓術道場建物이다.

1898년(高宗 光武2年) 御命에 의해 建立된 후 慶熙宮이 撤毀되면서 1922년 옛 登科亭 舊基에 옮겨졌다.

正面 4間中 北一間은 높은 柱礎위에 樓마루를 설치하고 南三間을 同一 LEVEL의 廳을 이루었다. 높이 42cm가량의 四角 礎石위에 角柱를 세우고 기둥머리에서 直接 大樑을 걸어 三分變作의 위치에 동자기둥 두고 宗樑을 얹었다. 굴도리로 된 五樑架로 前後面에 겹쳐마집이며 지붕은 八作지붕으로 하예 合閣部를 벽돌로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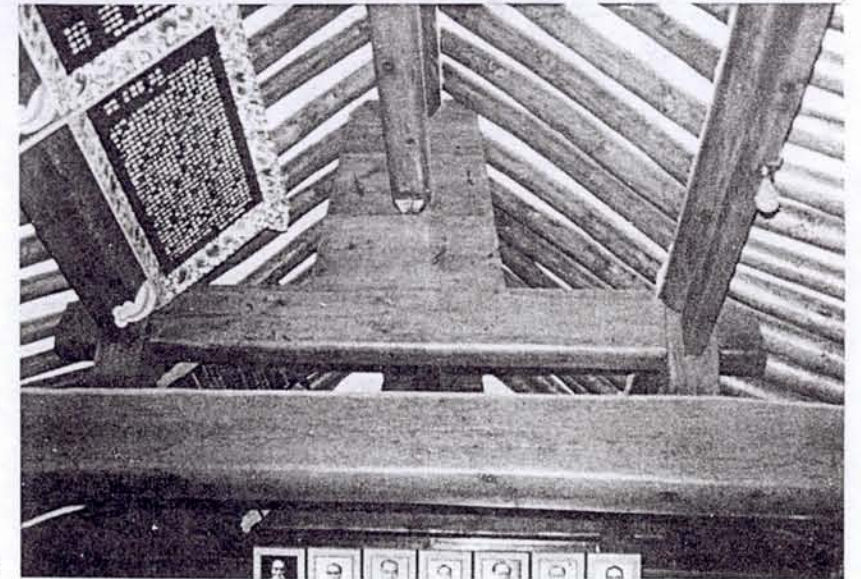
前面 四間을 전부 개방하여 四分閣 세살門을 내고 兩側面과 背面은 板門을 달았다. 前面의 南三間 分閣위에는 交窓을 내었다.



黄鶴亭 正面



黄鶴亭 北側面



黄鶴亭 内部 架構

7. 文化財 保護區域 内の 構造物 現況

서울特別市 鍾路區 社稷洞 1의28번지 史蹟 第121號 서울社稷壇 文化財 保護區域內에 散在하는 文化財 遺構 以外の 構造物 現況은 다음과 같다.

- 保護區域內的 全体面積 (公園地域面積) 19,890 坪
- 社稷壇 各壇의 面積 60.72 m² (18.40坪)
 - 壇垣內的 面積 1,019 m² (309坪)
 - 周垣內的 面積 5,715 m² (1732坪)
 - 壇垣 延長(壇門포함) 126m
 - 周垣 延長(周門포함) 304m
- 社稷壇 周邊의 文化財 絶對 保存區域 面積 약 10,590 坪

各園域別 構造物 現況

① 鍾路圖書館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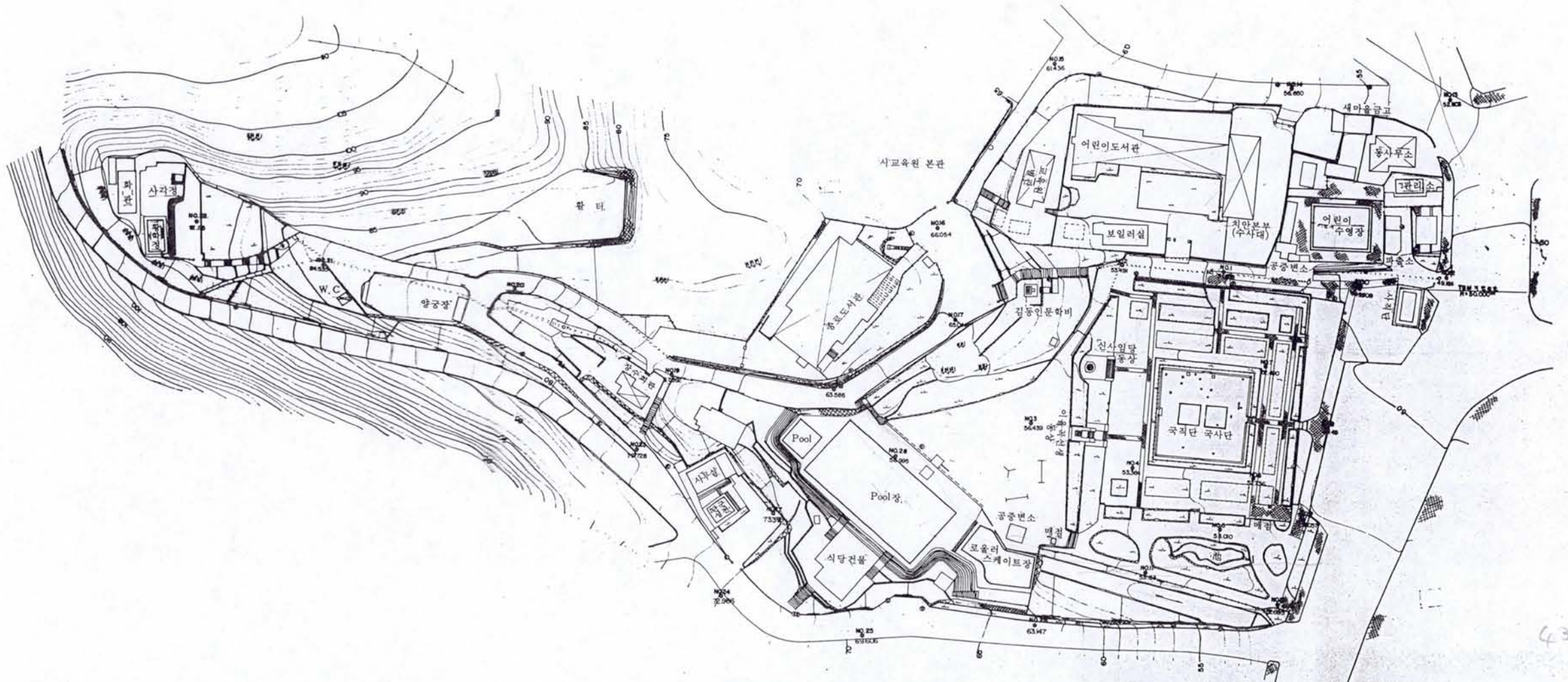
垜地面積 약 1000坪

- 圖書館 本館 3層 철근콘크리트造 延坪1074坪
- 賣票 守衛室 1層 벽돌造 2.6坪
- 小 計 1076.6坪

② 어린이 圖書館 內

垜地面積 약 2000坪

- 어린이圖書館 3層 철근콘크리트造 延649.54坪
- 治安本部수사대 3層 철근콘크리트造 延364.50坪
- 서울教育院 別館 2層 브록크造 延111.76坪
- 보이라室 1層 브록크造 延32.36坪
- 小 計 1158.16坪



社稷壇 周圍現況 平面圖

43

③ 洞事務所 派出所등 官公署 内	
• 社稷洞사무소 2層 벽돌스라브造	延104坪
• 새마을 금고 1層 벽돌스라브造	延20.26坪
• 사직동 派出所 1層 벽돌스라브造	延24.13坪
小 計	148.39坪
④ 顯正會 所管内	
垡地面積 약 250坪	
• 檀君聖殿 1層 木造韓瓦지붕	延16.40坪
• 事務室木棟 地上 1層 철근콘크리트造	延65.91坪
• 부속건물 1層 철근콘크리트造	延10.64坪
小 計	92.95坪
⑤ 黃鶴亭 所管内	
垡地面積 약 4,800坪	
• 弓道人 會館 1層 철근콘크리트造	延30坪
• 四角亭 1層 木造韓瓦	延2.45坪
• 회관뒤 창고 1層 브록크造	延8.16坪
• 便 所 1層 브록크造	延3.91坪
• 洋弓場建物 1層 브록크造	延9.21坪
小 計	延53.73坪
⑥ 第一水泳場 所管内	
垡地面積 약1617坪	
• 大形 POOL장	385.68坪
• 小形 POOL장 (1)	33.35坪
• 小形 POOL장 (2)	98.69坪
• 食堂建物 2層 철근콘크리트造	延104.36坪
• 부속건물	7.56坪

44

(延建物 면적) 小 計

111.91坪

⑦ 어린이 수영장

터지면적 약 280坪

- 어린이 POOL장 면적 90.75坪
 - 관리 건물 1層 벽돌스라브造 13.94坪
 - 부속건물 (1) 1層 벽돌스라브造 2.32坪
 - 부속건물 (2) 1層 벽돌스라브造 16.78坪
 - 창고 1層 벽돌스라브造 15.63坪
- 小 計(建物延面積) 48.67坪

⑧ 其他建物

- 長壽會館 2層 벽돌스라브造 延49.22坪
- 民家 1棟 1層 벽돌스라브造 延51.36坪

⑨ 便宜·管理施設

- 公衆便所 (1) 1層 벽돌스라브造 9.85坪
- 公衆便所 (2) 1層 벽돌스라브造 10.67坪
- 賣店 2개소 韓式木造 各1.70坪

⑩ 顯彰施設

- 李栗谷 銅像 좌대 2.43×2.43m 좌대높이 4m
- 師任堂 銅像 좌대 2.40×2.40m 좌대높이 4.9m
- 金東仁 文學碑 규모 3m×4m×1.5m



栗谷先生 銅像



師任堂 銅像

金東仁 文學碑

